

-학교생활목표- 자율(自律) 창의(創意)	高 학교소식	2012-2호 2012. 5. 7. 고산고등학교
---------------------------	---------------	----------------------------------

(우)565-861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551-23 (교장실)262-4089 (교무실)262-4370 (행정실)263-4371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정 여기저기 핀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학교 주위의 숲엔 신록이 싱그러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새 학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신입생들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학교구성원들이 새 학교문화 조성에 뜻을 모아 바른 생활태도 형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학부모 초청 수업공개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대만큼 많은 학부모님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수업 참관과 협의회를 통해 수업 개선과 자녀 교육을 위한 많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부모님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한 본관과 강당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학교의 모습이 한층 새로워졌습니다. 시청각실 신축도 공청회를 통해 기본 배치 계획을 확정짓고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는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석식 후 오후 8:30까지 실시하는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 의욕이 낮은 학생들의 특성상 참여도가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자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등학생은 자율적인 생활태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알찬 교육활동으로 자녀들의 바른 성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의 행사

일자	요일	행사명	비고
1-2	월-화	1차고사	
3	목	드림레터 퀴즈대회	
4	금	헌혈	희망자
7	월	학습전략검사 독후감·백일장대회	2-3,2-4
9	수	봉사활동 구강검진	2학년
10	목	진로특강	1학년
11	금	물모델 축구경기 관람	희망자
12	토	ITQ 교내 검정 실시	3학년
14	월	벌메체육대회, 선행상 시상	
17	목	2014한년도 수능 예비 시행	2학년
19	토	진로캠프 참가	희망자
25	금	현장체험학습	
26	토	물모델 축구경기 관람	희망자
30	수	공감 진로체험활동(여수)	희망자

※ 15일(화), 21일(월)은 재량휴업일입니다.



과학의 달 행사 실시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2012년 교내 과학의 달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회의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명	등위	학번	성명	비고
과학 독후감	우수상	3207	노진철	문화상품권 2매
	장려상	3308	김준수	" 1매
	장려상	1129	한효경	" 1매
미래과학 글짓기	최우수상	1124	임혜민	" 3매
	우수상	3314	이아름	" 2매
	장려상	3206	김태인	" 1매
	장려상	3209	박지이	" 1매
과학 포스터 그리기	장려상	2104	김하늘	" 1매
	최우수상	1322	장수호	" 3매
	우수상	3406	백민경	" 2매
	우수상	3412	이아린	" 2매
	우수상	3416	임지영	" 2매
	장려상	1116	유현정	" 1매
	장려상	3216	이은아	" 1매

- 새 학교문화 만들기 -

요즘 책가방 없이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사물함에 책을 보관한다지만 이를 보는 마음은 어찌 편치 않습니다. 농기구를 멀리하고 농사일을 잘 할 수 있으며, 청소용구 없이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거나 할까요?



〈새로 단장한 강당 전경〉

학부모 초청 수업공개의 날 운영

수업 공개를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월 19일 학부모 초청 수업공개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40여 분의 학부모가 참여한 이날 행사는 참관안내에 이어 3,4교시 수업 참관과 협의회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 수업공개의 날은 10.25(목)입니다.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특강 실시

지난 4월에는 2회에 걸쳐 진로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19일에는 학부모모임을 모시고 본교 진로진학부 이민수 진로상담부장이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0일에는 본교 도서관에서 우석대 방태남 교수가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판 다이하드 4.0'이란 주제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진로상담부에서는 1.2



학년 학생들의 각종 심리검사(홀랜드 검사, LCSJ검사, MLST검사 등)를 실시하고 개인별 파일을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여 진로진학 상담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활동지, 진로교육 내용을 담은 드림레터와 그리고 학교소식지 등 유용한 자료를 철해 놓을 수 있는 별매 홀더를 1,2학년 전학생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산촌 캠프 활동 실시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1박2일의 농촌 체험을 통해 지역의 자연과 생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과 14일 1,2학년 희망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고산면 울곡리 소재 고산산촌유학센터에서 진행된 체험프로그램은 천년고찰 화암사 탐방, 불명산 등산, 숲 해설 듣기, 숲 치유, 꿈 찾기 프로그램, 참 만남 관계 맺기, 명상의 시간, 자전거 하이킹, 감자 구워먹기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농촌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취감을 맛보며, 바른 교우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체험기>

김우석(1-2)

나는 처음에는 고산산촌캠프 참가에 신이 나고 좋았다. 처음에 가는 단체산행이라 더욱 신이 났다. 우리는 숙소 고산산촌유학센터에서 짐을 풀고 나서 화암사라는 사찰로 이동했다. 화암사 사찰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나는 힘이 들고 짜증이 났지만 화암사에 도착하고 나서는 나는 뿌듯하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역사와 초기 사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호남정맥을 타고 불명산으로 향했다. 바위로 된 정상을 보았다. 왠지 멋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내려와서 숙소로 향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꿈 찾기 프로그램을 하고 다음날에는 자전거 하이킹을 하였다. 나는 내 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 학급 교우들과 더 더욱 우정을 다졌다. 나는 이 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서이레(2-1)

학교에서 봉고차를 타고 고산산촌 유학센터에 가서 짐을 풀고 화암사로 향하였다. 화암사로 가는 길은 너무 험난했다. 산을 타고 30여분을 올라가서 드디어 화암사에 도착했다. 화암사에서 가이드께서 화암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이 캠프

에 가서 불교신자들이 ‘극락’에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화암사에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다. 화암사에서 설명을 듣고 불명산을 등반했다. 너무나 힘들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고 나니 기분이 정말 상쾌했지만 다시 내려 갈 생각을 하니 또 막막했다. 그래도 내려올 땐 별로 힘들지 않았다. 화암사에 갔다 와서 꿈 찾기 프로그램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드림레터 퀴즈 대회 실시

학교에서 배부하는 각종 가정통신문(드림레터, 학교소식지 등) 등이 교실 주변과 쓰레기통에서 종종 발견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드림레터 퀴즈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학교에서 배부하는 각종 가정통신문이 학부모님들에게 잘 전달되고, 학생들이 통신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기대합니다.

5월 3일(목)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문제를 제시하고 학급 모니터 화면 또는 학생 개인 휴대폰을 활용하여 문제를 보고 정답을 문자(카톡, 아님)로 담당샘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헌혈로 사랑 나누어요!

5월 4일 본교 학생 46명이 '함께 나누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헌혈운동에 참여한다는 2학년 이승민군은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헌혈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헌혈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



※ 학교소식을 보시고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님 의견을 보내 주세요. 학교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엄마 같은 선생님

김다솜(1-2)

5월이면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정말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는 중학교 때 저희를 정말 자식처럼 아껴주시고, 걱정해주는 선생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분 들은 저희가 중2 때부터 중3 때까지 담임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항상 자기 반 학생처럼 아끼시는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저는 그 분들 중에서 저를 2년 동안 돌봐주신 ‘김현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주 선생님께서는 제가 여지껏 봐왔던 선생님들 중에선 아직까진 NO.1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자식처럼 사랑해주시고, 학생들의 고민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우리들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면,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시는 훌륭하고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어른이 된다면,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된다면 정말 닮고 싶은 어른이자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연합고사 다 보고 무사해 주길 기다리시고, 고등학교 면접 보는 날도, 합격자 발표날도 우리들보다 더 긴장하시고 초초해 하시는 선생님…….

스승의 날이 아닌 아버지의 날에도 생각날 것 같은 선생님, 엄마 같이 포근하고 친근하신 선생님.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중학교 3년 동안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정의 달을 맞아

이광림(1-4)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의 일이었다. 냉장고를 열며 무심코 “아~ 파인애플 먹고 싶다.”라는 혼잣말을 했는데 다음날 냉장고 안에 파인애플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코끝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일지라도 엄마는 하나라도 무심코 흘러보내는 일이 없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전에는 5월이 되면 어린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제는 어버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로 여겨진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난 아직 어린이라며 부모님께 선물을 달라고 칭얼거리던 내가 지금 조금은 철이 든 것 같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다.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 끼, 아빠가 주시는 용돈. 사실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 모든 게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성적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가기 어려워져서 부모님께서도 많이 울기도 하시고 마음 고생을 하셨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번 어버이날에는 진심을 담아 나로 인해 행복한 미소를 지어보이실 부모님을 떠올리며 편지 한 통을 써보려 한다.



반장이 되어서

이동근(2-2)

나는 중학교 3학년 10월에 인천에서 고산으로 전학을 왔다. 그러고 보니 벌써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인천에서는 전교생이 1200명이나 되고, 학급 친구는 40명이 나 되어 늘 교실은 꽉 차 있었다. 학교 주변엔 큰 호수공원과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었고, 교문만 나서면 어디든 복적 거렸다. 학원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주로 PC방, 당구장, 노래방을 자주 애용했던 것 같다.

고산은 조용하다. 사방이 산이고 들판이고 나무다. 읍내 PC방을 제외하면 딱히 놀거리도 없다. 처음엔 적적하고 심심해서 많이 우울했었다. 그러나 학교 친구들이 순박하고 다정해서 곧 친해 질 수 있었다.

2학년이 되면서 나는 조그만 욕심이 생겼다. 무덤덤한 고등학교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었고 좀 더 어른스러워 지고 싶었다. 난생 처음으로 반장선거에 출마했다. 소견 발표 시간에 “뽕아취”라는 말 밖에 못했다.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고 좀 더 멋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나는 반장이 되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기대도 하시는 듯 하다. 담임선생님 심부름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애써 본다. 훗날 소중한 경험이 될테니까.

지금 나는 고산 고등학교 생활에 만족한다. 자연 속에 있어서 좋고 친구들이 다정해서 좋다. 그리고 처음 맡은 반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목표의식이 생겨서 좋다. 일생에 한번 뿐인 이 시간들을 알차고 멋지게 보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멋진 반장이었으면 좋겠다.

아버이의 은혜

김찬양(2-4)

1년 중 단 하루, 아버지날. 난 그 날이 아직도 카네이션만 가슴에 달아드리면 끝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를 보면 아직도 어린이날을 챙겨줘야만 하는 어린이 같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아버이 은혜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 어떤 좋은 말로도 아버이 은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생각으로만 부모님 은혜를 말하는 나는 아직 철이 안든 꼬맹이다.

나는 언제쯤 진심으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하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도 먼저 대화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이것이 부모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가장 우선된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나도 부모님 속 덜 썩히도록 노력 해야겠다.

나에게 친구란

진석환(3-2)

우리가 3학년이 된 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변은 온통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우리도 그만큼 커 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엔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 행사가 참 많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우리는 기대와 설렘으로 체육대회를 기다리

고 있습니다. 반 친구들과 그리고 후배들의 힘을 합쳐 하나가 된 팀을 보여 줄 체육대회입니다.

친구는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차 올라가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믿음 하나가 사람을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도와주는 그런 친구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고 슬플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 그런 친구는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게 합니다.

작년에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친한 친구였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것을 보니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을 때의 슬픔은 정말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친구와의 함께 했던 모든 추억과 시간들을 가슴 속에 담았습니다. 저 또한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으나 다른 친구들이 저를 어떤 친구로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마지막 남은 3학년을 활기차게 좋은 추억을 만들며 즐겁게 생활하겠습니다.

장수연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부실장 은솔이입니다. 3학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어가네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처음 3월엔 고등학교 시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두근거리기도 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속상합니다.

선생님도 미술수업시간에만 만나다가 담임선생님을 하시는 거라서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엄마같이 잘 인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선생님의 호탕한 웃음도 너무 좋아요.

가끔 우리반 아이들과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속상해 하는 모습에 제가 부실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옆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해요.

선생님! 벌써 1차고사도 지나가고 이번 5월은 행사도 많고 바쁘실 텐데 힘내세요! 교생선생님도 오시고, 마지막 3학년을 기념할 좋은 추억이 하나 더 생겨서 기뻐요. 매달 약간은 어설이지만 생일파티도 같이 보내고 또 미술선생님만의 특기인 예쁜 글씨로 생일카드를 써 주신 거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5월 체육대회며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학년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을 두고두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힘들고 슬프고 기쁜 일 모두 같이 잘 이겨 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잊혀질 수도 있는 날이 오겠지만 이 시간이 지난 한참 후에도 이 시절이 추억으로 소중하게 간직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 제자 은솔(3-4)올림 -

